

선발 공격수 최용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김현석이다



울산 김호곤(오른쪽), 서울 최용수 감독은 25일 맞대결을 앞두고 전화통화를 했다. 훈훈한 대화 속에 날카로운 칼이 숨어 있었다. 작년 6강 플레이오프 기자회견장에서 만나 환하게 웃고 있는 두 감독.

울산-서울 오늘 K리그 맞장...사제지간 '허허실실 설전' 왜?

서울 지난해 6강PO 완패 '복수혈전' 최용수 감독 "호랑이굴 반드시 승리"

울산 리그 3위...선두권 도약 돌파구 김호곤 감독 "무섭다...살살 좀 하자"



"선생님, 내일 저희 선발 공격수는 최용수입니다."

"그래? 허허. 그럼 우리는 김현석을 내보내야겠구나." 울산 현대 김호곤(61) 감독과 FC서울 최용수(39) 감독 사이에 오간 선문답이다.

울산과 서울은 25일 오후 7시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경기를 치른다. 원래 15일에 치러졌어야 하는 데, 울산이 호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원정을 다녀오느라 8라운드 경기가 미뤄졌다.

서울은 울산에 갇아야 할 빛이 있다. 최 감독은 작년 시즌 초반 팀이 연패로 흔들리자 사임한 황보관 전 감독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감독대행으로 정규리그 3위에 오르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6강 플레이오프(PO)에서 김 감독이 이끄는 울산에 1-3으로 졌다. 변명의 여지없는 완패였다. 최 감독은 이를 갈았다. 이번 대결을 앞두고 "내가 어떻게 작년 11월19일(울산과 6강 PO)을 잊을 수 있

겠느냐"며 각오를 다졌다. 올 시즌에도 두 팀은 치열한 순위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른 팀보다 1경기씩 덜 치른 현재 울산은 승점 17로 3위, 서울은 승점 15로 4위다. 상위권 도약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맞대결을 앞두고 두 감독이 한가로운 농담을 주고받은 이유는 뭘까.

●웃음 속에 숨은 칼 두 감독은 막연한 사제지간이다. 동래고와 연세대 선후배이고, 김 감독이 연세대 사령탑 시절 최 감독이 선수였다. 평소에도 최 감독은 전화로 종종 안부를 묻는 등 김 감독을 깎듯하게 모신다. 김 감독 역시 "(최)용수 같은 제자가 좋은 지도자로 성장하니 좋다"며 덕담을 건네곤 한다. 23일 최 감독이 김 감독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감독은 "용수야, 살살 좀 해라. 지

금 너희 팀 명단을 보고 있는데 너무 무섭다"고 웃으며 말했다. 최 감독도 지지 않았다. "역시 선생님은 노련하시군요. 그럼 저희 베스트11을 알려드릴까요"라고 반어했다. 김 감독이 "다 알고 있는데 뭘 알려주려고 하느냐"고 하자 최 감독은 "내일 저희 선발 공격수는 최용수입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김 감독의 대답도 걸작이었다. "그럼 우리는 김현석(울산 수석코치)을 내보내야겠구나." 소리장도(笑裏藏刀). 웃음 속에 칼을 감춘다는 뜻이다. 두 감독 대화는 훈훈했지만 날카로운 칼이 숨어 있었다. 절대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한편부름을 위한 무대는 마련됐고, 카운터다운이 시작됐다. 사제대결이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윤태석 기자 sport@donga.com 트위터@Bergkamp08



KOC-바른세상병원 의료협약 체결

대한체육회(KOC)는 바른세상병원과 의료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국가대표선수 부상 시 원활한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협약은 23일 태릉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서 박종길 태릉선수촌장과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2004년 개원한 바른세상병원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해 있으며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6개 진료과와 2센터, 90병상을 갖추고 있다. KOC는 이로써 서울, 부산, 충북 등 모두 8곳에 협력병원(중앙대병원·건국대병원·울지병원·양산부산대병원·진천성모병원·충북대병원·서울의료원·바른세상병원)을 두게 됐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김봉길표 닥공' 인천상륙작전

김 감독대행 "15위 인천, 공격축구가 돌파구"

인천 김봉길(46·사진) 감독대행이 공격축구를 펼치며 눈길을 끌었다. 인천은 22일 K리그 9라운드 울산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48분 마라냐에게 결승골을 헌납하며 0-1로 졌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 경기였다. 전에 볼 수 없었던 활발한 움직임과 끈끈한 팀워크를 보여줬다. 인천은 설기현을 최전방에 내세웠고 정혁과 최중환을 측면에 배치하면서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했다. 중앙 미드필더였던 정혁은 스피드와 체력을 바탕으로 그라운드 전역을 누비며 설기현을 지원했다. 김 대행의 지시에 따라 측면 수비수인 박태민과 전준형도 활발한 오버래핑을 시도했다. 인천은 득점을 올리지 못했지만, 슈팅수에서 9개(유효슈팅 7)를 기록하며 7개(유효슈팅 3)에 그친 울산을 위협했다. 인천은 허 감독 시절 공격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답답한 경기를 이어갔다. 1승2무4패를 기록하며 15위에 그쳤다. 김 대행은 "1~2경기를 통해 축구 스타일을 말하긴 이르지만, 공격 축구로 인천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sangjun47

이청용 9개월만에 컴백...코일 감독 "힘 난다"

9개월 만의 1군 컴백이다. 작년 7월 정장이 골절상에서 회복된 이청용(불티)이 24일(한국시간) 이스턴 훈련장에 복귀해 팀 훈련을 소화했다. 불티는 구단 홈페이지에 여러 장의 이청용 훈련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올려놓으며 "익숙한 얼굴이 돌아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겹게 싸움을 하던 동료들 곁으로 왔다"고 반가움을 드러냈다. 특히 기뻐한 건 사령탑 오연 코일 감독. 이미 지난 주말 애제자의 복귀를 예고했던 그는 "땀에 젖은 이청용을 다시 볼 수 있어 기분이 좋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yoshike3

ERGO 다음을 만나야 할 때! 4.5월에 자동차 보험이 만기라면 전화만 해보세요 ▶기간: 2012년 4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9:00 ~ 오후 6:00) 상담 문의 1544-1666 ERGO 다음

'최·양시대' 허문 젊은피...PGA 한국골퍼 세대교체

(최경주·양용은) (존허·배상문)

PGA투어에서 뛰고 있는 한국선수들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 시즌 PGA투어에서 활약 중인 한국 및 한국계 선수는 모두 9명. 1세대인 최경주(42·SK텔레콤) 위창수(40) 양용은(40·KB국민금융) 케빈 나(29·타이틀리스트)를 비롯해 올해 입성한 배상문(26·켈러웨이) 존허(22) 노승열(21·타이틀리스트) 대니리(22·켈러웨이) 그리고 투어 2년 차 강성훈(25·신한금융그룹) 등이 활동 중이다. 예년과 달라진 것은 리더 역할을 했던 최경주와 양용은이 부진하다는 점. 상급랭킹



이 뒤로 많이 밀려 있다. 24일 현재 최경주 77위(46만5336달러), 양용은 111위(26만789달러)다. 1세대의 부진 속에 첫 시즌을 맞은 새내기들의 활약은 기대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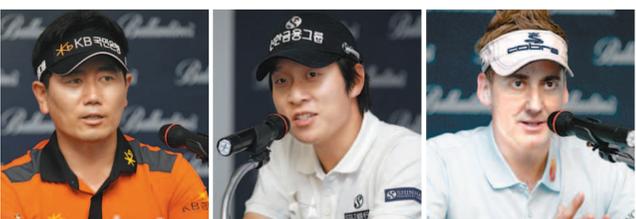
23일 끝난 발레로 텍사스오픈에서 2위에 오른 존허는 시즌 상금 173만5580달러로 13위에 올라 있다. 배상문도 94만1146달러를 벌여 30위다. 중간급인 케빈 나와 위창수는 21위(122만8487달러)와 28위(106만2047달러)로 선전 중이다. 과거 최경주와 양용은의 경우 최소 2~3년씩 힘든 시기를 거친 뒤 PGA투어에 적응했다. 그러나 존허, 배상문, 노승열 등은 첫 시즌부터 펄펄 날고 있다. 존허는 올해 마야코바클래식 우승에 이어 발레로 텍사스오픈 2위에 오르는 등 한국선

수 중 가장 돋보인다. 배상문 역시 WGC 액센추어 매치플레이어 공동 5위, 트랜지션스 챔피언십 2위 등 뛰어난 성적을 올리고 있다. 26일 시작하는 발렌타인 챔피언십 출전을 위해 귀국한 양용은은 24일 경기도 이천 블랙스톤 골프장에서 열린 공식 인터뷰에서 후배들의 활약을 선배들의 영향에서 찾았다. 그는 "아들 셋 중 첫째는 배우고 성장하는 데 조금 더디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둘째, 셋째의 경우 부모와 형의 행동을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na1872

발렌타인 챔피언십 예선은 19禁...왜?

주류업체 주취사 19세 이하 출전 제한 자기들이 출전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 바로 예선전 성격의 '로드 투 더 발렌타인'을 거치는 것이다. 딱 한 장의 티켓이 걸려 있다. 올해 주인공은 최고용(25)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로드 투 더 발렌타인'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규정이 있다. 바로 나이 제한이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선수라도 만 19세 이하는 출전이 제한된다. 본 대회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국내에서 프로골퍼가 될 수 있는 나이는 만 17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 예선전에는 만 19세 이하의 출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발렌타인 챔피언십의 주최사인 페르

노리카코리아의 회사 방침 때문이다. 주류업체로서 미성년자에게 홍보활동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선전을 통한 한 선수는 본 대회 때 발렌타인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와 옷을 입고 출전해야 한다. 19세 이하의 선수가 예선전에서 우승하게 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다. 작년 '로드 투 더 발렌타인'에서는 프로골퍼 A씨가 19세 생일에 하루 차이로 나이 제한에 걸려 출전하지 못한 바 있다. 올해도 비슷한 일이 생겼다. 이 대회에 출전해 기량을 펼쳐 보이고 싶었던 주니어 골퍼는 나이제한 규정 때문에 일찌감치 출전을 포기했다. 주영로 기자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국내 남자 프로골퍼에게는 꿈의 무대다. 24일 경기도 이천 블랙스톤 이천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양용은, 김경태, 이안 풀터(맨 왼쪽부터)가 각오를 밝히고 있다. 이천 1 연합뉴스